

GS칼텍스, 중국 P-X 지분 양보

허동수 회장, 30% 안팎 양보의사 비취 ... 중국과 Win-Win 희망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5월18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건설한 P-X(Para-Xylene) 플랜트(리둥(麗東)석유화학유한공사) 합작선 확보 등과 관련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나가려면 중국 유수의 화학기업과 합작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빠른 시일에 합작함으로써 한-중 양측이 서로 Win-Win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동수 회장은 양재동 aT센터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합작지분 참여 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50% 이하로는 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칭다오 공장은 GS가 다 건설하고 가동하고 있는 만큼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 윈윈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3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뒷받침했다.

또 유가 고공행진에 따라 다시 일부 불거지고 있는 <과중한 유류세금> 논란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면서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 억제 등을 위해 고율의 세금을 유지하고 있고 복지, 시설투자 등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발전해야 회사도 발전하는 것인 만큼 국가정책에도 부응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판단에 대해서는 “담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추정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고 전제하고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비슷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름값을 올릴 때는 많이 올리고 내릴 때는 조금 내린다거나, 국내에서는 비싸게 값을 매기고 해외수출에서는 싸게 매긴다는 식의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커C유를 분해해 고부가가치의 유류제품을 생산하는 제3 고도화설비 추진과 관련해서는 “(등·경유 생산 중심의) 제2 고도화설비와 달리 휘발유와 나프타를 주로 만들고 병커C유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까지도 깨서 휘발유와 나프타 등을 만드는 신공법을 도입하며 2조원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공정 효율화를 통해 원유 정제시설 4기의 하루 정제능력을 15만-20만배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21>